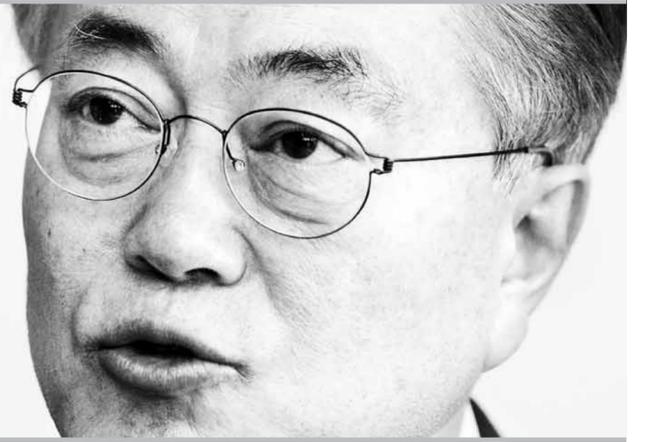


“호남 지지 없이 정권교체 어려워 강력한 국가균형정책 펼치겠다”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1> 문재인

정유년 '대선의 해'가 밝았다. 19대 대선은 애초 오는 12월 20일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일보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대선 주자들에게 대한 집중·연세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제시하는 시대적 비전과 호남의 미래 등에 대한 입장을 듣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치권의 잠룡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주자로 꼽히고 있다. 여론 성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보수 정권의 실패와 민주당 내부의 역학 구도 등을 고려하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잠룡들 가운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변수는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이다. 아직도 호남 민심의 근저에는 '비문'(비 문재인) 정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의 한 북-카페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는 대선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도 호남 민심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대답=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 재출마의 명분은. ▲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춘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호남 민심이 염원하는 정권교체를 해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자부한다. 만약 저보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높은 후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물러나서 그를 도울 것이다.

- 요즘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 우선은 앞서가고 있고 가장 잘 준비돼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아닌가. 야권의 대표 선수가기 때문에 집중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촛불 민심과 호남 민심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정권교체의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 총선 광주에서 '호남 민심의 지지 얻지 못하면 정계은퇴 하겠다'는 발언의 논란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 민주주의의 본산이며, 당의 뿌리인 호남에 대한 존경과 애정 속에서 호남의 지지를 받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을 표현한 말이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다. 호남의 지지 없이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기 어렵고, 정권교체도 어렵다. - 호남의 '비문'(비 문재인) 정서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나.

▲ 전국적으로 자에 대한 지지가 있고 거부 정서가 있다. 호남의 지지가 다른 지역보다 못하지 않다. 그래서 호남의 비문정서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호남의 기대에 미흡했을 수 있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드리는 데 부족했을 수 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당내에 '진문'(진 문재인) 패권주의가 없다고 보나

▲ 친문 성향의 의원들은 있었지만 패권주의는 없다. 친문 패권주의 주장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본다. 제가 당 대표를 하는 동안 뜻대로 하지 못하고 엄청 흔들렸지 않나. 이를 두고 당내에 친문 패권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한민국을 상식적인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친문이라고 생각한다.

- 확장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많다.

▲ 지지도가 높은 후보가 확장성이 큰 것 아니냐. 가장 앞서가는데 확장성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제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 지지율과 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고무적이다.

정계은퇴 발언 호남 향한 절실한 마음

호남이 바라는 준비된 후보 자부

촛불 민심 정치의 장에서 실현

더 강력한 후보 있으면 물러날 것

불균형 성장의 최대 피해는 호남

보수정권 10년간 균형발전 끊겨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자 뿌리

정권교체시 호남인사 최우선 중용

권력 나눠먹기식 개혁 논의 안돼

국정농단 부른 세력 책임 물어야

지방분권 강화, 개헌시 필수 항목

국민의당과 연정 가능성 열려있어

야권, 정권교체 위해 힘 모을 때

경선을 통해 누가 후보가 돼도 당 지지율과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권교체의 확실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 결국 당의 분당을 막지 못하고 촛불 민심에 끌려가는 등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있다.

▲ 옳은 지적이다.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고 당을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앞으로 야권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 낮은 자세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 하지만, 촛불 민심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와 민주당은 촛불민심과 함께 해왔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촛불 민심의 요구를

정치에서 실현하고 제도화 하겠다.

- 대선 정국에서 '제3지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 이런 논의는 새누리당 정권 연장 또는 권력 나눠먹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제3지대론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촛불 민심과 유리된 정치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 국민의당과 연정에 대한 입장은.

▲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야권 전체가 힘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 논의할만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 이러한 얘기에 대해 (국민의당에서)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야권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하고 함께 국정 운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 시기와 상황이 성숙되면 가능하다는 것인가.

▲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마음을 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개혁보수신당 등을 포함한 '대연정론'도 나오고 있다.

▲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세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가 오기까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세력과는 연대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다.

- 영남 분위기는 어떤가.

▲ 기적처럼 좋아지고 있다. PK(부산·경남)는 새누리당에 끌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 TK(대구·경북)는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은 확실한데 그 지지가 민주당에 확실하게 오지는 않고 있다. 이반된 민심을 민주당으로 끌어오는 것이 과제다.

- 영남 민심이 결집한다면 과거와 같은 호남 민심의 지지가 없어도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그렇지 않다. 영남과 호남은 서로 맞물리는 것이다. 호남의 지지가 좀 더 든든하다면 영남에서 훨씬 더 힘을 쓸 수 있다. 호남에서 지지를 더 받아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고 문재인이 승리하는 흐름이 형성되면 영남에서도 그만큼 더 지지를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거꾸로 영남에서 선전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높이면 호남 표심의 결집도 강고해질 수 있다.

- 그동안 영남이 권력과 자본, 기회를 독점해 왔는데 동의하냐.

▲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박정희 체제가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하지만 정부 축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 전략이었다. 그런 속에서 차별과 소외된 지역이 생겼고 그 대표적 지역이 호남이다. 이제부터 제대로 성장하려면 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 정책이 계속 이어져 가야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되고 오히려 거꾸로 되돌아갔다. 제3기 민주정부를 이룬다면 저는 참여정부 때보다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정책을 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대선 전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데.

▲ 지난 대선에서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누구보다 개혁에 적극적이다. 다만 아직 대통령 탄핵도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몇몇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개혁은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에 개혁특위가 구성되는 만큼, 모아진 의의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하고 정권 초반에 개혁을 하면 된다. 특히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개혁에 담아야 한다.

- 선거제도 개편도 시급하다.

▲ 지역구도 극복 등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어찌보면 개혁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지난번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공약했고 당 대표 시절에도 관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만들어내지 못한 속내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현행 제도에서 개편할 부분은 하고 개혁을 통해서라도 이뤄내야 한다.

- 호남 주도 정권 창출론에 대한 입장은.

▲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드리지 못해 지난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권교체 중심은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호남이 하게 됐다고 본다. 호남이 민주 진영의 심장이고 민주당의 뿌리라는 점에서 제가 후보가 돼서 정권교체를 이룬다면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이 되는 것은 물론 호남 정치와 호남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새도 개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인사들을 대거 중용할 것인지.

▲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탕평 인사는 당연하다. 호남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로 대할 것이고 호남 인사들을 특별하게 중용할 것이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사진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형일 : 2017. 1. 12(목)

편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형일 : 2017. 1. 23(월)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형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 오후 3시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후 3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형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